



김현성 대한장애인체육회 위원 위촉

김현성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2일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실에서 개최된 2025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김현성 사무처장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특수체육 전문 교수, 교사, 중앙 및 시·도 가맹단체 실무자 등 총 15인의 장애인생활체육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 방침과 정책 수립 △시·도 운영 및 지원 방향 △기타 생활체육 진흥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전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 사무처장은 전국 시·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중 유일하게 위원으로 참여, 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사무처장은 “올해 시범 운영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정착과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원으로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광주특구본부 ‘딥테크데이’ 열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광주특구)는 최근 주이노비즈센터에서 2025 딥테크 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부터 투자유치까지 딥테크 사업화 강화를 목적으로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기술 보유 대학 및 연구기관과 기업 약 70명이 참여해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행사의 Deep Tech 우수팀 매칭데이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실의 발표와 상담을 통한 기술지원을 추진했다. 글로벌 딥테크 활성화 컨설팅은 유망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등 종합적 검토와 전문가 컨설팅 통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디핀소싱 투자유치 IR은 지역과 수도권 투자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했다.

광주특구는 지역 내 딥테크 창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우수 연구실과 교류 확대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부터 딥테크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화 컨설팅, 투자유치 연계 등 통합 지원을 강화중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승현 기자



전남농협, 출근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전남본부(본부장 이광일)는 최근 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남약정류소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출근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협중앙회가 추진 중인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으로 직장인들의 아침식사 결식율이 50% 전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쌀 간편 조식(주먹밥, 김밥 등) 나눔을 통해 쌀 가공식품 소비 촉진과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광일 본부장은 “국민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범국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아침밥 먹기 생활화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상승효과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당구연맹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 만들었어요”

광주시당구연맹 ‘문화의 밤’ 영화 ‘미션 임파서블’ 관람 “회원들과 화합 다지는 계기”

광주시당구연맹이 ‘문화의 밤’ 행사를 생활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동구 롯데시네마 충장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종규 회장과 김성수 수석부회장, 박용훈 부회장 등 임원진과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당구연맹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당구연맹 임원과 가족, 선수단 등을 초청해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관람했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미션 임파서블’ 영화 시리즈의 여덟 번째 작품이자 최종 작품이다. 전 세계 디지털 시스템을 위협하는 신형 무기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광주시당구연맹이 최근 동구 롯데시네마에서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당구연맹 제공

이단 헌트가 무기 무력화의 열쇠를 손에 넣고 동료들과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사와 함께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은 “이번 문화의 밤 행사를 통해 당구연맹 가족들

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길 바란다”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힐링하는 시간을 통해 우정과 화합을 더욱 다져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혜원 기자



법무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청정미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가 2일 광주 광산구 주식회사 청정미트(대표 성동환·법무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기업인위원회 문화체육국장)와 후원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정미트는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한 후원·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자 자립 의지와 사회복귀 의욕 고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동환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돼 뿌듯하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 새 출발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동행”이라며 “지역기업과 협력해 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광주예선 성황

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광주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은 최근 본원 발명교원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 광주지역 예선’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발명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4-6인이 팀을 이뤄 표현과제, 즉석과제, 제작과제 3가지를 해결하게 된다.

광주지역 예선은 서면 심사를 통과한 초등부 5팀(26명), 중등부 1팀(4명), 고등부 3팀(15명) 등 총 9팀이 참여한 가운데

데 진행했다.

학생들은 표현 과제에서 ‘택배 왔어요~~!’를 주제로 해결 계획서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즉석 과제에서는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을 창의성과 기술적 능력을 활용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 예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초1팀, 중1팀, 고1팀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본선에 광주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임미옥 창의융합교육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꼈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주민 심리상담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소를 운영했다.

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화재로 대피령이 발령된 각 아파트 주민 공용 공간에 재난심리지원 활동가들이 상주해 1대 1 개별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재난경험자들의 신체적 안정을 위해 회복 지원서비스도 운영됐다.

임성희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해 불안함을 느꼈을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공공보건의로 협력체계 구축사업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광주기독병원, 원외대표협의체 회의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제1차 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책임의료기관 사업의 핵심 협력 주체인 원외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보건의로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2024년 책임의료기관 사업 성과 공유 △2025년 사업 추진 방향 안내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일차의료·돌봄 협력사업, 퇴원환자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기반의 실질적 협력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홍건영 공공의료본부 기획실장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야말로 책임의료기관의 핵심 역할이다”며 “광주기독병원이가 중심이 돼 실효성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지난해 동·남권역을 담당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공공보건의로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 및 실무회의를 운영하며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